

‘벌써 1만명’... 순천어울림도서관 뜨거운 관심

시범운영 기간 중 1만명 다수가 개선사항 정비 후 오늘 재개관 애니메이션 등 순천 비전 담아 그린광장서 야외도서관 운영

순천어울림도서관이 개관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시범 운영된 가운데, 이용자 수 1만명을 돌파하며 순천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어울림도서관은 홍수 피해 방지 시설인 동천변 저류지 위에 어울림 체육센터와 함께 조성된 순천시의 9번째 시립도서관이다.

어울림도서관은 애니메이션, 정원,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특성과 도서관이다. 세 가지 테마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자료실’, ‘우주항공 자료실’, ‘정원 자료실’은 순천시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일반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어울림도서관은 약 400만 종의 전자자료 서비스를 통해 일반 분야 도서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웹툰, 만화책, 애니메이션 콘텐츠

로 가득한 애니메이션 자료실이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큰 인기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순천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어울림도서관은 고전적인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2층의 메인 공간인 ‘어울마당’은 높은 층고와 널찍한 공간감, 카페와 같은 쾌적한 분위기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힐링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강연, 공연, 전시 등이 개최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어울림도서관은 또 최신 기술이 도입돼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위케이션 지원 PC, 노트북·태블릿 대출기, 오디오북 체험 부스, 디지털 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3D 영상이 상시 상영되는 실감형 콘텐츠 공간은 이용객들에게 신선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어울림도서관은 오전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 인근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정원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야외 도서관 운영 및 북크닉 용품 대여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과



지난달 12일 순천시 관계자들이 최근 개관한 순천어울림도서관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방문객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절에 따른 정원 속 독서 모임과 문화행사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휴식과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울림 체육센터가 시민들의 신체 건강을 지원한다면, 어울림도서관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지혜를 키우고

문화 콘텐츠 기반이 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어울림도서관은 시범운영 후 개선사항 정비를 위해 1일까지 휴관을 거쳐 2일 개관한다. 대출·반납, 상호대차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북크닉 용품 대여 및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분야의 명사 특강이 진행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다섬이와 떠나는 섬탐험’ 초등학교 3~6학년 참여자 모집

여수시는 오는 26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섬이와 떠나는 아름다운 섬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의 섬의 역사, 섬마을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마스코트인 다섬이를 활용해 여수~고흥 간 연륙교를 따라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등의 섬 문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또한 섬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줍기(플로깅) 활동을 통해 해양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0일까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yeosu.go.kr/edu)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주말·휴일도 농기계 대여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도 감면

여수시는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토요일과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한다.

농기계 임대는 주삼동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가능하며 출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반납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대형농기계(트랙터, 콤팩트, 스킵로더)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현장까지 운송해 주며, 농기계 조작 및 안전수칙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제공된다.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사전에 여수시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총 88기종 162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기종별 특성 및 임대료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yeosu.go.kr/agr)를 참고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달 28일과 29일 장흥군 유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5회 면민의 날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제35회 유치면민의 날’ 기부 손길

지난달 28일과 29일 장흥군 유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제35회 면민의 날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면민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치면이장자치회와 함께 문재식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임

동양 강산애조경(주) 대표, 이정중 지후스틸 이사가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했다.

광주 중앙청과 문인석 씨는 바나나 30박스, 샤인머스켓 30박스를 이웃사랑 물품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유치면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경아 유치면장은 “이번 기탁식을 통

해 면민들이 더욱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유치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식과 함께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면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기탁식에 참여한 임동양 대표는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유치면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시, ‘AI푸드스캐너’ 시범운영

이달 31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광양시는 시범운영 중인 ‘AI 푸드스캐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AI 푸드스캐너는 식사 전·후의 식판(음식물)을 스캔하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스캐닝을 통해 영양을 분석하고 식사량을 확인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스템은 식판 잔반량에 따라 원아에게 각기 다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식사 시간을 일종의 놀

이로 인식하게 해 영유아의 식습관 개선과 편식 방지에 도움을 준다.

어린이집은 식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아의 식습관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식사 전후 실제 사진, 식사량과 영양성분 등의 정보가 학부모에게 매일 카카오톡으로 전송돼 어린이집과 가정 상호 연계해 자녀의 건강한 식습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푸드스캐너 도입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시민참여-‘신규정책 디

자인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시민 의견수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거쳐 성과를 측정할 후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8월 28일 한국보육진흥원 및 스타트업(신생기업) ㈜누비랩과 광주·전남 최초로 ‘어린이집 AI푸드스캐너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한 관내 어린이집 12개소(5세 반)에 총 16대의 AI푸드스캐너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관광기념품 홍보 판매 노동항 드론쇼 연계

고흥군이 오는 5일부터 노동항 드론쇼와 연계해 관광기념품을 현장 판매한다.

이번 홍보판매전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고품의 기념품을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고품의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판매되는 기념품은 유자 키팅, 유자향 캔들, 차량용 방향제, 유자 브로치, 해변 플래너, 메모지, 볼펜, 휴대전화 그림책, 고품의 경치를 사진으로 담은 엽서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품 판매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고흥의 특색을 담은 기념품을 통해 방문객들이 더 오래 고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항 드론쇼는 화려한 드론 공연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남의 대표적인 행사로, 군은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고품의 문화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관광기념품 판매는 드론쇼 기간인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구매를 원하는 관광객은 노동항다정원 현장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보성군 ‘교육 발전 포럼’ 성료 스타강사 이지영 초청 개최

보성군이 지난달 28일 보성 공설운동장에서 사회탐구 영역 최다 수강생을 보유한 스타강사 이지영 씨를 초청해 개최한 ‘제3회 보성 교육 발전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래를 여는 청소년의 힘과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인근 지자체 주민 등 총 1000여 명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열린 이지영 강사의 특강으로, 이지영 강사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며 참석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감동과 동기를 부여했다.

특히 이지영 강사의 ‘특강 Q&A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보낸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인생의 조언을 전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 청년 페스티벌’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주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과 축제가 어우러진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현장에서 직접 배움의 기회를 경험하고,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학생은 “평소 방송과 유튜브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이지영 강사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현재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아 기쁘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